

SERI 경제 포커스

2013. 10. 1. (제429호)

탄소시장의 3대 이슈와 전망

목차

FOCUS	1
1. 탄소시장의 구조와 현황	
2. 탄소시장의 3대 이슈	
3. 국내 현황 및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3
경제일지	14
경제통계	17

작 성: 조용권 수석연구원
(yongkwon.cho@samsung.com)
02-3780-8109



삼성경제연구소

< Executive Summary >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EU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며 처음 탄소시장이 개설되었다. 그 이후 여러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2013년 기준 EU, 아시아·태평양, 북미를 중심으로 10곳의 탄소시장이 있고, EU가 전체 탄소시장의 73%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2년 글로벌 탄소시장의 배출권 거래량은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액은 37%나 급감했다. 이는 EU의 경기악화로 탄소배출량이 크게 줄어들며 배출권 공급이 급증해 탄소시장의 공급과잉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탄소시장에는 3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는 EU 탄소시장의 회생 가능성이다.** 공급과잉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붕괴위기에 놓인 EU 탄소시장을 살리기 위해 EU는 할당량 산정 강화 및 연도별 감축, 배출권 거래 대상산업의 확대, 배출권 경매시기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은 급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둘째는 중국 배출권거래제의 성공 여부다.** 중국은 2015년에 전국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선전, 상하이, 베이징, 톈진, 충칭, 광둥 성, 허베이 성 등 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7개 지역의 시범사업만으로도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도약할 전망이나,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중국 전역에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도변경과 방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과 기업의 혼란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호주 탄소세의 지속가능 여부다.** 호주는 2012년 7월부터 1tCO₂당 23호주달러의 탄소세를 도입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정가격의 탄소가격제를 도입한 사례로,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최고인 호주가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소세가 EU의 배출권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아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조기에 폐지되고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배출권 가격은 EU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절감을 목표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탄소시장 운영의 후발주자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U나 호주 등의 실패사례와 중국과 같은 신규시장을 철저히 벤치마킹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중국 진출 시에는 현지 제도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탄소시장의 구조와 현황

교토의정서 발효 후, EU에서 시작된 탄소시장이 북미와 아시아로 확대

-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에 맞춰 EU는 배출권거래제¹⁾를 시행하며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탄소시장을 최초로 설립
 - 1997년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2005년 공식 발효
 - 선진국 중심으로 2008~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
 - 2005년 EU 25개국 내 1만 1,963개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할당량을 지정하며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

EU 탄소시장의 배출권 구분

구분	근거	종류	내용
할당량 기반 (Allowance)	EU 배출권거래제	EUA	· 배출권거래제하에서 참가국에게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
프로젝트 기반 (Offset Credit)	유엔 (교토의정서)	CER	· 유엔이 인증한 청정개발사업(CDM)의 감축 결과로 인정된 배출권
		ERU	· 유엔이 인증한 공동이행사업(JI)의 감축 결과로 인정된 배출권

주: EUA(EU Allowance),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ERU(Emission Reduction Units),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²⁾, JI(Joint Implementation)³⁾

-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도 거래제를 도입해 10개의 탄소시장을 운영 중
 - 스위스, 뉴질랜드, 카자흐스탄(이상 배출권거래제), 호주(탄소가격제) 등이 국가 차원에서 탄소시장을 운영
 -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지자체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¹⁾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배출권을 구입하여 이를 상쇄하도록 하는 감축방식

²⁾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³⁾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의 협력하에 이뤄지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 인도(2014년), 한국(2015년), 브라질, 칠레 등도 탄소시장 도입을 계획
- EU는 전체 탄소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 배출국의 교토의정서 체제 탈퇴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
- EU의 탄소배출 할당 규모가 전체의 약 73%를 차지해 가장 큰 시장을 형성
- 미국(2001년), 캐나다, 일본, 러시아(이상 2011년) 등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탈퇴하면서 국가 전체보다는 지자체 중심으로 탄소시장을 운영

탄소시장의 구조

(단위: 백만tCO₂)

지역	지역	단위	설립시기	할당량 ¹⁾	비중(%)
유럽	EU	국가연합	2005	2,250	72.7
	스위스	국가	2008	3	0.1
아시아/ 태평양	뉴질랜드	국가	2010	32	1.0
	日 도쿄	지자체	2010	10	0.3
	호주	국가	2012	330	10.7
	카자흐스탄	국가	2013	168	5.4
	中 선전	지자체	2013	32	1.0
북미	美 RGGI ²⁾	지자체 연합	2009	83	2.7
	美 캘리포니아	지자체	2012	163	5.3
	加 퀘벡	지자체	2013	23	0.8

주: 1) 할당량은 2013년 기준

2)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美 10개 州(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자료: Carbon Finance (2013). Mapping Carbon Pricing Initiatives. 를 토대로 작성

2012년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거래액은 큰 폭 하락

- 2012년 글로벌 탄소시장의 거래량은 전년 대비 25.3% 증가했으나, 거래액은 36.7% 하락

- 탄소배출권 거래량(억tCO₂) : 87(2011년) → 109(2012년)
 거래액(십억유로): 98(2011년) → 62(2012년)
- 2012년 탄소배출권의 가격급락(전년 대비 △49.5%)이 주요 원인
 - EU의 경기악화로 탄소배출이 급감하며 배출권 공급과잉이 심화

글로벌 탄소시장의 거래량 및 거래액, 평균가격 추이

(단위: 억tCO₂, 십억유로, 유로/tCO₂)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거래량	2	7	12	31	71	69	87	109
거래액	3	10	21	63	80	86	98	62
가격	15	14	18	20	11	12	11	6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 탄소시장의 3대 이슈

① 붕괴위기에 놓인 EU 탄소시장은 회생 가능한가?

배출권 가격의 급락세는 진정됐으나 과거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

□ 공급과잉 심화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며 EU 탄소시장은 붕괴위기에 봉착

- 美 금융위기와 EU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며 탄소배출량이 감소, 이로 인해 배출권 공급이 급증하며 탄소시장의 공급과잉이 심화
 - 2009년 이후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2012년까지의 잉여배출권은 약 20억tCO₂로 추정
- 2013년 EU 탄소배출권 가격은 2011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
 - 가격(유로/tCO₂): 14.02('11.1.3) → 4.55('13.8.30)⁴⁾

⁴⁾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EU 탄소시장의 수급 추이(2008~2012년)

(단위: 백만tCO₂)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배출권 공급	2,034	2,069	2,172	2,312	2,802	11,389
배출권 수요	2,056	1,823	1,881	1,840	1,787	9,387
공급-수요	△22	246	291	472	1,015	2,002

주: 당해연도의 공급량으로 이월된 배출권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

자료: Credit Suisse (2013). We expect no backloading in the near-term.

□ EU는 배출권 '공급축소', '수요확대', '수급조절' 등의 3가지 방향으로 탄소시장의 구조 개선과 공급과잉을 해소할 계획

- 배출권 공급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 할당량 제한, 할당량 산정 강화, 연도별 할당량 감축, CER 거래 제한 등을 추진
- 배출권 수요확대를 위해 항공운항부문도 적용 대상에 추가
 - 전체 할당량의 10% 수준인 2억tCO₂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⁵⁾
- 배출권 일부의 공급시기를 연기해 단기적으로 공급과잉을 해소
 - 2013~2015년의 배출권 중 9억tCO₂을 2019~2020년에 공급

EU 탄소시장 개혁의 주요 내용

구분	조치	주요 내용
공급축소	포괄적 제한	· 국가별 제한 → EU 통합 제한
	할당량 산정 강화	· 과거 실적 기준 → 우수 실적 벤치마킹
	연도별 감축	· 2013년 할당량에서 매년 1.74%씩 축소
	CER 거래 제한	· 아산화질소(N ₂ O) 등을 감축한 CER 거래 불허
수요확대	적용산업 확대	· 항공운항부문을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포함
수급조절	배출권 공급량 조정 (Backloading)	· 공급 연기: △4억tCO ₂ ('13), △3억tCO ₂ ('14), △2억tCO ₂ ('15) → +3억tCO ₂ ('19), +6억tCO ₂ ('20)

⁵⁾ 한국무역협회 (2011). "EU, 항공부문 탄소배출 거래제 시행 및 영향".

- 공급시기 연기 등으로 배출권 가격의 급락세는 진정될 것이나, 상당량의 잉여배출권이 시장에 남아 있어 가격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EU의 공급시기 연기 조치로 9억tCO₂의 잉여배출권 공급이 이월됐음에도 탄소시장에는 약 10억tCO₂의 잉여배출권이 잔존
 - EU 탄소시장의 배출권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 1tCO₂당 10유로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잉여배출권의 이월불허를 통한 배출권 삭감 조치 등이 필요

EU 탄소시장의 배출권 가격 전망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가격 (유로/tCO ₂)	6.5	7.5	8.5	9.6	9.7	10.0	10.5	11.0

자료: Societe Generale (2013). Carbon Market in a State of Flux.

②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반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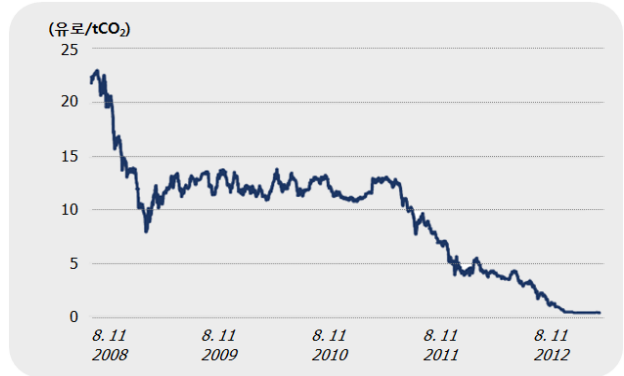
-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중국은 대규모의 CDM사업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을 줄이지 못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도 결정
 - 개도국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CDM사업은 중국, 인도 등이 적극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배출권인 CER을 판매하여 투자자금 회수
 -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7년 70.1억tCO₂에서 2011년 97.0tCO₂로 연평균 8.5% 증가
 - 미국(△2.1%), EU27개국(△2.2%) 등은 오히려 감소⁶⁾

⁶⁾ EC (2012). Trends in Global CO₂ Emissions.

- 한편, 중국은 3,000건 이상의 CDM사업을 추진하며 2,0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온실가스 감축엔 한계
- CER 역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 회수에도 어려움

CDM사업 Top5 국가 및 CER 가격 추이

순위	국가	CDM사업(건)	투자(억달러)
1	중국	3,048건	2,202
2	인도	1,197건	485
3	브라질	269개	54
4	베트남	231개	64
5	멕시코	171개	89



주: 사업건수 및 투자규모는 누적 기준

자료: American Progress (2013). Carbon Market Crossroads.

□ EU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EU 탄소시장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

- 2013~2015년까지 선전 등 7개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한 후 2015년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
- EU 탄소시장의 배출권 공급과잉, CER 사용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보완
 - '조정 가능 쿼터 배분⁷⁾', 'CCER(China CER)⁸⁾' 등을 새롭게 시도
- 7개 지역의 탄소배출량은 중국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16~19.5% 감축할 계획
 - 지역별로 시행시기, 감축목표, 적용산업, 대상업체 기준 등이 상이

⁷⁾ 탄소배출에 대한 쿼터와 부가가치 성장률을 함께 분배하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쿼터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기업의 탄소배출이 자연스럽게 줄며 예기치 않게 탄소배출권이 과잉으로 공급되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을 이를 통해 해소

⁸⁾ 유엔에서 인정받지 못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중국정부가 자체 심사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정해주는 배출권으로, 이를 통해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

7개 지역의 배출권거래제 주요 특징

(단위: 백만tCO₂)

구분	선전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광둥	허베이
개시일	'13.6	'13.末	'13.末	'13.末	'13.末	'13.末	'14.初
감축목표	16%	18%	19%	19%	17%	19.5%	17%
업체기준	5천tCO ₂	1만tCO ₂	1만tCO ₂	2만tCO ₂	미정	2만tCO ₂	12만tCO ₂
대상업체	835개	600개	200개	120개	미정	820개	107개
분야 ^{주)}	7개 분야	4개 분야	8개 분야	8개 분야	6개 분야	9개 분야	6개 분야
배출량	83	100	240	130	125	510	320
할당량	32	50	110	78	미정	214	112

주: 선전(전력, 천연가스, 수처리, 제조, 운송, 건설, 일반 빌딩), 베이징(전력, 열, 제조, 일반 빌딩), 상하이(오일&가스, 항공, 전력, 철강, 비철금속, 섬유, 제지, 광물), 톈진(철강, 화학, 전력, 열, 석유화학, 오일&가스, 광산, 건설), 충칭(철강, 합금, 카바이드, 가성소다, 시멘트, 알루미늄), 광둥(시멘트, 철강, 세라믹, 석유화학, 섬유, 비철금속, 전력, 제지, 플라스틱), 허베이(전력, 철강, 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자동차)

자료: Monash University (2013). Market Mechanisms for China's Carbon Emission Reductions: Economics, Modelling and International Experience.를 토대로 작성

□ 중국은 7개 지역 시범사업만으로도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제도 변경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과 기업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

- 7개 지역의 총 할당량이 6억tCO₂(충칭은 미정)을 넘을 것으로 보여 EU에 이어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도약할 전망

Top5 탄소시장

지역	EU	중국	호주	카자흐스탄	캘리포니아
할당량 (백만tCO ₂)	2,250	596	330	168	163

주: 중국은 충칭을 제외한 6개 지역의 총 할당량

- 그러나 2015년 국가 전체로 배출권거래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

· 7개 시범 지역 중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가장 엄격하고 산업분야가 가장 많이 포함된 광둥 지역의 제도가 국가 표준으로 적용 가능성

- 제도 변경이 불가피하고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도 대비가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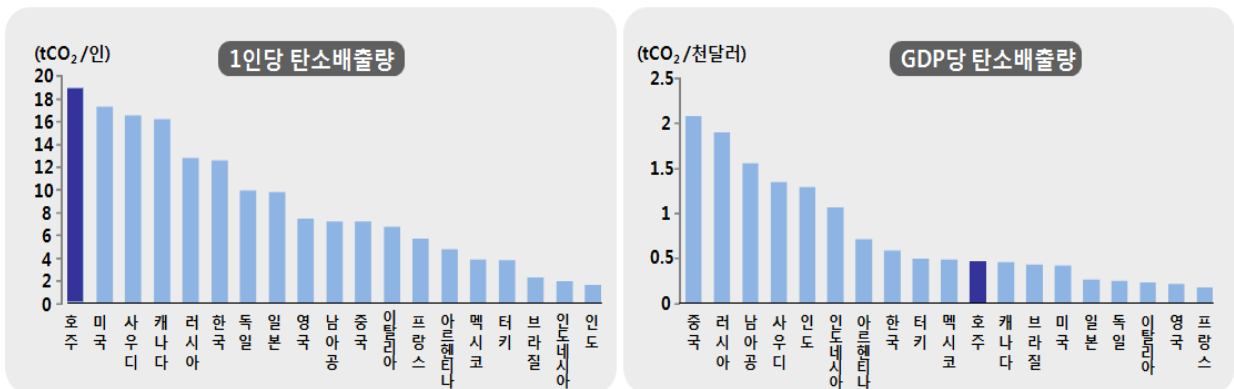
③ 호주의 탄소세는 지속 가능한가?

경제적 부담으로 조기 폐지되고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될 가능성

□ 교토의정서 비준국인 호주는 석탄 의존도가 높아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가 부담스러운 상황

-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3억tCO₂로 전 세계의 1.3%에 불과하나 1인당 배출량은 19tCO₂로 세계 최고 수준

호주의 1인당 및 GDP당 탄소배출량



자료: EIA

자료: JRC

- 호주는 석탄이 풍부해 광공업 및 발전분야에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편
 -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전력생산 부문이 36%, 연료원을 채굴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Fugitive Emission)이 8%를 차지⁹⁾

□ 2012년 7월 호주는 유일하게 국가에서 고정가격의 탄소가격제를 시행

- 탄소가격제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할당량 이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

⁹⁾ Deutsche Bank (2012). Where is Australia's Carbon Price headed.

- 호주는 2012년 7월부터 초기 3년 동안은 고정가격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후엔 변동가격으로 부과할 계획
 - 고정가격(호주달러/tCO₂): 23.0('12.7~'13.6) → 24.15('13.7~'14.6)
→ 25.4('14.7~'15.6)¹⁰⁾
- 탄소세 도입으로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탄소가격제는 폐지되고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될 전망
 - 2013년 9월 호주 총선에서 탄소세에 부정적이던 야당이 승리하여 고정가격의 탄소가격제가 2014년에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될 전망
 - 또한 2015년에는 EU의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자국기업이 EU의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자국기업의 비용부담 절감이 목적)
 - 2014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호주의 배출권 가격은 EU 수준(6.5 유로/tCO₂)으로 크게 하락할 전망
 - 1tCO₂당 24.4호주달러에서 9호주달러 수준으로 하락 기대¹¹⁾

결론: 미완의 제도는 시장혼란과 경제부담을 야기

- 경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도의 무리한 도입은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미숙한 제도로 인한 배출권 가격의 급변은 시장기능의 실패를 유발하고, 지나치게 높은 탄소세는 국민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
 - 정책 불확실성 역시 시장과 기업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소지
- 선도국가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배출권거래제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이 필요
 -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우선할 필요

¹⁰⁾ Carbon Finance (2013). Mapping Carbon Pricing Initiatives.

¹¹⁾ POINT CARBON (2013.7.16.). Australia plans to bring forward carbon trading. Press Releases.

3. 국내 현황 및 시사점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가인 한국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예정

- 한국은 CDM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
 - 86건의 CDM사업에 19억달러를 투자(세계 9위)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5.2억tCO₂에서 2011년 6.1억tCO₂로 연평균 4.1% 증가
 - 동기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1.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
 -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1인당 배출(12.6tCO₂)은 세계 6위를 기록¹²⁾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예정
 -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2011년 7월)
 - 개도국 대상 권고안(배출전망치 대비 15~30% 감축)의 최고 수준
 - 2012년 국회 최종 의결에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2013년 2월)
 - 2015년까지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온실가스 대량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 관리업체 수: 386개(2010년) → 490개(2011년) → 586개(2012년)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구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규제 방식	· 직접 규제 (Cap and Non-trading)	· 배출권 거래를 통한 간접규제 (Cap and Trading)
목표 설정	· 단년도	· 다년도(초기 3년/이후 5년)
목표달성 수단	· 자체 감축	· 자체 감축, 구매, 상쇄
초과감축 시	· 인센티브 無	· 배출권 판매 또는 이월

자료: 강승진 (2013).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쟁점사항".

¹²⁾ Joint Research Center;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국가는 기업경쟁력 제고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배출권거래제를 설계

- 정부는 글로벌 탄소시장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거래제를 시행 중인 주요 탄소시장을 철저히 벤치마킹할 필요
 - EU(배출권거래제), 호주(탄소가격제) 등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했으나 상당한 시행착오를 경험
 - 시행착오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중국, 미국, 호주 등 주요 탄소시장을 주의 깊게 벤치마킹할 필요
 -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고 도입시기도 비슷한 중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
-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구축에 주력
 - 경기변동에 따라 탄소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 할당량 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할당제도를 도입
 - 무리한 감축목표는 배출권 가격 급등을 초래할 소지, 따라서 해외 배출권 구입을 허용하거나 CER 허용기준(배출량의 10% 수준)을 상향 조정해 기업 부담 완화
 - 계획대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과도한 감축목표로 2020년 배출권 가격이 1tCO₂당 130달러(EU 가격 대비 15배)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¹³⁾
 - 한편, 기업이 탄소시장 도입을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
 - 한국기업이 해외기업과 협력해 이룬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인정해주어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¹⁴⁾
 -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킨턴전시플랜 수립도 고려

¹³⁾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3). South Korea's Emissions Trading Scheme.

¹⁴⁾ 일본은 자국 기업이 개도국의 기업과 1대1 협약을 맺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하여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

기업은 감축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중국 진출 시 만전을 기할 필요

□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

-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나 청정에너지 기술 확보가 최우선 과제
 - 특히 공장이나 건물의 전력소비 효율화를 위해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적용을 적극 추진¹⁵⁾
- 사업장별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함으로써 감축 효율성을 극대화
 - 개별 사업장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공장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온실가스를 감축

□ 중국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인 있는 한국기업은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제도 변화를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

- 2015년 중국 전역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내재화
 - 탄소시장 개설 예정인 7개 지역의 1,000여 개 기업을 포함해 중국 전역에 3,336개의 한국 제조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¹⁶⁾
- 중국 내 CDM사업을 통해 CCER을 미리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

CDM사업 주요 분야

분야	신재생	메탄 감축	에너지 효율화	청정연료로 교체	아산화질소 감축	조림 및 기타
비중(%)	70	15	10	2	2	1

자료: UNEP RISO Center

<以上>

¹⁵⁾ 1961년 이후 49년간 국내 전력소비 증가율은 11.3%로, 전 세계 전력소비 증가율(1973~2010년) 3.4%의 세 배 이상 수준

주간 금융지표

금리: 최근 금리 하락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및 동양그룹 사태에 따른 우려 등으로 상승

	9.23	9.24	9.25	9.26	9.27
회사채(AA-)	3.21	3.23	3.25	3.27	3.25
회사채(BBB-)	8.91	8.93	8.95	8.97	8.95
국고채(3년물)	2.80	2.82	2.84	2.85	2.83
콜금리	2.49	2.49	2.51	2.49	2.49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달러는 원화, 엔화, 유로화 대비 약세

	9.23	9.24	9.25	9.26	9.27
원/달러	1073.8	1072.2	1076.7	1075.1	1073.7
엔/달러	98.85	98.74	98.44	98.99	98.26
달러/유로	1.3493	1.3474	1.3526	1.3489	1.3522
원/100엔	1086.35	1085.94	1093.76	1086.07	1092.71

자료: 한국은행, ECOS.;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美 연준의 자산매입규모 유지 결정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상승

구 분		9.23	9.24	9.25	9.26	9.27
거래소	KOSPI(p)	2,009.41	2,007.10	1,998.06	2,007.32	2,011.80
	거래량(만주)	24,954	30,936	29,475	25,555	28,234
	시가총액(조원)	1,175	1,174	1,169	1,174	1,177
	외국인순매수(억원)	3,142	747	2,390	2,102	2,227
코스닥지수(P)		527.07	527.29	527.27	532.83	537.50

자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주간 경제일지

(9. 30 ~ 10. 4)

09. 30. (월)

- 국내 보도자료: 2013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3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유로 9월 소비자물가 (EU통계청)
일본 8월 광공업생산 (경제산업성)

10. 01. (화)

- 국내 보도자료: 201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2013년 9월 수출입동향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 보도자료: 미국 9월 ISM제조업지수 (구매자관리협회)
유로 8월 실업률 (EU통계청)
일본 8월 실업률 (총무성)

10. 02. (수)

- 국내 보도자료: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10. 03. (목)

- 해외 보도자료: 미국 9월 ISM비제조업지수 (구매자관리협회)

10. 04. (금)

- 국내 보도자료: 2013년 9월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미국 8월 실업률 (노동부)

주간 해외 경제일지

(9. 23 ~ 9. 27)

미 주

<p>9. 23. (월) · 미국: 8월 건축허가 전월대비 3.8% 감소한 91만 8,000건, 상무부</p>
<p>9. 24. (화) · 미국: 8월 기존주택매매 전월대비 1.7% 증가한 548만 호, 전미부동산협회</p>
<p>9. 25. (수) · 미국: 7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한 162.49, S&P</p>
<p>9. 26. (목) · 미국: 9월 소비자대지수 전월대비 2.1p 하락한 79.7, 컨퍼런스보드</p>
<p>9. 27. (금) · 미국: 8월 내구재주문 전월대비 0.1% 증가, 상무부</p>

유 럽

<p>9. 23. (월) · 유로지역: 2/4분기 고용 전년동기대비 1.0% 감소, Eurostat</p>
<p>9. 24. (화) · 영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4% 하락, 통계청</p>
<p>9. 25. (수) · 이탈리아: 7월 산업수주 전월대비 0.7% 감소, 통계청</p>
<p>9. 26. (목) · 네덜란드: 2/4분기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0.1% 감소, 통계청</p>
<p>9. 27. (금) · 프랑스: 9월 경기기대지수 전월대비 1p 하락한 97, 통계청</p>

일 본

<p>9. 23. (월) · 일본: 7월 광공업생산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경제산업성</p>
<p>9. 24. (화) · 일본: 7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전월대비 0.5% 상승, 경제산업성</p>
<p>9. 25. (수) · 일본: 7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대비 0.1p 상승한 107.9, 내각부</p>
<p>9. 26. (목) · 일본: 7월 경기동행지수 전월대비 1.3p 상승한 107.7, 내각부</p>
<p>9. 27. (금) · 일본: 8월 전국백화점판매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백화점판매연합회</p>

아 시 아

<p>9. 23. (월) · 호주: 8월 실업률 전월대비 0.1%p 상승한 5.8%, 국가통계국</p>
<p>9. 24. (화) · 싱가포르: 7월 소매판매 전년동월대비 7.8% 감소, 통계청</p>
<p>9. 25. (수) · 중국: 8월 해외직접투자유입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상무부</p>
<p>9. 26. (목) · 말레이시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통계청</p>
<p>9. 27. (금) · 필리핀: 7월 총수입 전년동월대비 8.7% 증가, 통계청</p>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8	2.3	43.8	8.5	4.7	3.2	..	14.3	11.9	7.02	0.03	0.02	1,124.5
2009	0.3	49.1	-0.2	2.8	3.6	2.2	10.3	7.9	5.81	0.03	0.02	1,682.8
2010	6.3	52.2	3.8	3.0	3.7	9.1	8.7	8.2	4.66	0.03	0.03	2,051.0
2011	3.6	47.3	6.7	4.0	3.4	1.6	4.2	5.3	4.41	0.02	0.02	1,825.7
2012	2.0	44.8	0.7	2.2	3.2	6.2	5.2	7.8	3.77	0.02	0.02	1,997.1
2012. 8		43.6	-0.1	1.2	3.0		5.7	7.8	3.40	0.02	0.02	1,905.1
9	1.6		0.2	2.0	2.9	4.7	5.2	7.6	3.31	0.02	0.01	1,996.2
10			-0.5	2.1	2.8		4.6	7.1	3.30	0.02	0.02	1,912.1
11		44.9	-0.9	1.6	2.8		4.4	7.1	3.32	0.03	0.03	1,932.9
12	1.5		-1.2	1.4	2.9	3.8	4.5	7.3	3.30	0.02	0.02	1,997.1
2013. 1			-1.6	1.5	3.4		4.8	7.7	3.20	0.02	0.02	1,961.9
2		46.4	-1.6	1.4	4.0		5.3	8.1	3.06	0.01	0.01	2,026.5
3	1.5		-2.4	1.3	3.5	6.0	5.0	6.8	2.95	0.02	0.01	2,004.9
4			-2.8	1.2	3.2		5.1	6.9	2.91	0.02	0.02	1,964.0
5		47.3	-2.6	1.0	3.0		4.8	6.8	2.96	0.02	0.02	2,001.1
6	2.3		-1.4	1.0	3.1	4.3	4.9	6.6	3.24	0.01	0.01	1,863.3
7			-1.0	1.4	3.1		4.6	6.5	3.38	0.02	0.01	1,914.0
8		48.1	-1.3	1.3	3.0		3.33	0.01	0.01	1,926.4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임금(제조업, 실질)은 2008년 이후 추정방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KSIC-9차개정)에 따라 2008~2010년 자료를 소급 적용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평균 가동률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10=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8	86.4	100.8	1.1	1.1	2.4	-14.9	-7.6	77.6	3.3	15.7	-3.1	22.1
2009	93.3	97.4	2.6	4.3	-2.1	-12.0	5.0	74.4	-0.2	7.5	-9.2	13.0
2010	100.0	100.7	6.7	8.8	4.5	8.0	-17.7	80.3	16.7	38.2	19.9	-7.8
2011	102.4	101.0	4.5	7.7	5.6	7.6	6.1	80.2	6.0	27.0	11.1	2.9
2012	107.2	99.7	2.3	1.8	2.0	-13.4	-8.9	78.1	0.8	8.2	-3.2	4.9
2012. 7	108.0	99.8	3.8	4.2	0.1	-9.4	23.1	77.8	-0.3	-7.5	-10.8	7.7
8	108.1	99.3	1.1	-1.9	3.0	-13.8	-32.4	74.0	-2.1	11.8	-29.7	6.3
9	108.0	99.3	3.1	1.5	4.1	-8.1	-19.7	76.7	-0.8	0.0	-11.4	12.7
10	108.3	98.9	1.6	-2.8	-3.3	-20.8	-26.6	77.0	-1.9	5.9	-4.8	6.1
11	109.1	99.1	4.3	13.3	5.0	-26.4	-20.0	78.0	2.1	25.4	3.5	5.4
12	109.9	99.2	2.2	0.9	1.6	-17.0	-43.0	78.4	-0.4	30.0	-4.9	7.7
2013. 1	110.1	99.2	-2.7	-7.4	-16.6	-3.6	-52.7	78.6	8.0	26.7	23.9	31.8
2	110.4	99.3	1.6	1.0	8.3	-34.1	-47.0	77.2	-9.8	7.8	-17.4	-5.7
3	110.7	98.9	1.8	7.0	0.9	13.4	-20.7	75.4	-3.0	14.7	-12.3	-0.3
4	111.3	99.0	2.0	-2.0	-2.5	-0.3	-18.6	75.4	1.4	15.9	-1.5	6.6
5	112.0	98.8	0.6	1.0	-1.0	16.3	-18.4	75.4	-1.4	4.7	-0.8	-11.9
6	113.0	99.0	0.8	3.7	5.5	10.5	-40.4	75.4	-2.6	1.7	-5.0	-7.0
7	113.9	99.0	1.1	-3.1	-0.1	3.8	-15.3	74.2	0.8	25.4	-4.7	-9.3

주: 2013년 1월부터 현행 2005년 기준지수를 2010년 기준으로 변경

◆ 대외거래 ◆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교역지수 (증감률)
	수출		수입		對美		對아시아		對中		對EU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	-13.8
2009	363,534	-13.9	323,085	-25.8	37,650	-18.8	190,761	-10.9	86,703	-5.1	46,608	-20.2	9.9
2010	466,384	28.3	425,212	31.6	49,816	32.3	255,178	33.8	116,838	34.8	53,507	14.8	-0.3
2011	555,214	19.0	524,413	23.3	56,208	12.8	314,006	23.1	134,185	14.8	55,727	4.2	-10.9
2012	547,870	-1.3	519,584	-0.9	58,525	4.1	318,235	1.3	134,323	0.1	49,371	-11.4	-2.4
2012. 8	43,045	-6.0	41,116	-9.4	4,222	-2.3	25,245	-6.5	11,062	-4.8	4,322	2.9	2.1
9	45,413	-2.4	42,560	-6.0	4,814	0.4	26,833	0.2	11,783	1.0	4,302	-6.0	-0.0
10	47,088	1.0	43,380	1.6	4,439	-3.6	28,343	5.9	12,461	5.2	4,039	2.4	-0.3
11	47,805	3.9	43,382	0.9	5,114	-5.3	29,584	11.9	12,429	11.0	3,466	-14.0	-0.4
12	44,875	-6.0	43,069	-5.3	4,555	-1.0	27,526	0.7	11,994	2.7	3,792	-8.5	2.7
2013. 1	45,678	10.9	45,259	4.0	4,961	20.3	26,368	11.0	11,425	16.7	3,765	-3.2	-0.1
2	42,341	-8.6	40,396	-10.4	5,003	-11.0	24,136	-6.7	10,388	-1.1	3,868	-15.2	-0.2
3	47,323	0.0	44,031	-2.3	4,980	-16.1	27,958	3.4	11,686	5.8	4,006	-7.9	2.3
4	46,179	0.2	43,738	-0.5	5,346	0.7	26,739	7.7	12,138	16.0	4,565	8.2	5.4
5	48,320	3.1	42,418	-4.6	5,746	21.6	27,857	5.6	12,487	16.5	3,929	-14.0	6.1
6	46,690	-1.0	40,714	-3.0	5,291	6.3	26,279	-0.8	11,398	5.3	4,583	12.3	5.4
7	45,835	2.6	43,299	3.2	5,155	9.9	27,199	3.2	12,880	14.5	4,024	6.7	1.5
8	46,378	7.7	41,525	1.0	4,979	17.9	26,989	6.9	12,477	12.8	3,940	-8.9	1.0

주: 순상품교역지수는 2013년부터 기준년도를 2010년으로 변경하면서 2010년 이후 시계열 단절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8	3,197.5	5,170.1	-5,734.1	4,435.4	109.3	-16,940.4	-2,405.6	201,223	1,257.5	1,393.89	3,173.7	245.5
2009	32,790.5	37,866.0	-6,640.5	2,276.7	289.6	-14,948.0	49,727.7	269,995	1,167.6	1,262.82	3,456.8	690.0
2010	29,393.5	40,082.5	-8,626.0	1,015.9	-217.9	-22,184.3	42,479.8	291,571	1,138.9	1,397.08	3,597.6	913.0
2011	26,068.2	31,660.0	-5,849.5	2,890.9	-24.7	-16,410.0	13,109.3	306,402	1,153.3	1,485.16	3,987.2	979.6
2012	43,138.5	38,337.7	2,676.2	4,885.5	602.1	-18,628.1	10,114.8	326,968	1,071.1	1,247.50	4,134.4	1,224.6
2012. 8	2,504.3	2,514.0	-262.2	435.5	8.0	-1,607.1	580.9	316,885	1,134.6	1,443.97		
9	5,913.1	5,486.6	323.3	203.9	32.4	-2,378.2	2,668.7	322,015	1,118.6	1,441.12	4,193.8	1,072.1
10	5,781.7	5,168.9	378.3	521.9	-6.1	-975.0	-4,657.2	323,461	1,094.1	1,374.50		
11	6,906.2	6,777.4	-51.6	374.3	5.8	-1,336.2	-3,875.8	326,091	1,084.7	1,320.55		
12	2,140.2	1,917.3	30.8	639.0	107.1	-669.5	3,194.2	326,968	1,071.1	1,247.50	4,135.7	1,223.3
2013. 1	2,331.7	2,617.7	-927.1	968.4	48.5	-1,417.7	-4,374.3	328,910	1,082.7	1,188.47		
2	2,712.9	2,562.9	-461.0	628.9	37.8	-777.8	1,993.5	327,395	1,085.4	1,176.20		
3	4,927.2	4,159.2	905.1	-222.3	65.7	-1,870.4	-3,389.1	327,408	1,112.1	1,180.13	4,102.8	1,342.3
4	3,926.9	3,543.3	1,447.6	-1,088.6	-36.8	303.3	-1,917.5	328,800	1,108.1	1,132.04		
5	8,683.8	7,270.0	1,130.5	193.6	-16.8	-1,482.2	-1,171.9	328,095	1,128.3	1,116.58		
6	7,237.3	5,024.8	1,183.8	957.2	-6.0	-1,375.8	-5,285.4	326,440	1,149.7	1,167.15	4,117.7	1,403.2
7	6,766.7	5,674.0	357.0	776.5	-119.5	-981.0	1,847.4	329,709	1,113.6	1,135.40		
8	5,735.4	5,331.3	100.6	475.2	66.8	-915.2	1,438.4	331,094	1,110.9	1,129.19		

《 주요국 통계 》

[미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0.3	-3.5	3.8	5.8	13,075	25,410	-6,771	0.25	8776.4
2009	-3.1	-11.4	-0.3	9.3	10,697	19,581	-3,819	0.25	10428.1
2010	2.4	5.4	1.6	9.6	12,889	23,372	-4,420	0.25	11577.5
2011	1.8	4.1	3.1	8.9	14,974	26,632	-4,659	0.25	12217.6
2012	2.2	3.8	2.1	8.1	15,641	27,340	-4,750	0.25	13104.1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백억엔	백억엔	백억엔	%	
2008	-1.0	-3.4	1.4	4.0	8,102	7,895	1,677	0.1	859.2
2009	-5.5	-21.8	-1.3	5.0	5,417	5,150	1,376	0.1	907.6
2010	4.7	16.6	-0.7	5.1	6,740	6,076	1,788	0.1	898.8
2011	-0.6	-2.3	-0.3	4.6	6,555	6,808	955	0.1	728.6
2012	2.1	-1.0	0	4.4	6,374	7,067	462	0.1	859.8

주: 1) 전년동기대비, 2) overnight call, 3) TOPIX

[유로지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3	-2.3	3.3	7.6	15,771	16,151	-1,423	2.50	2451.5
2009	-4.4	-13.7	0.3	9.6	12,800	12,682	-211	1.00	2966.2
2010	2.0	4.1	1.6	10.1	15,338	15,519	-20	1.00	2792.9
2011	1.5	2.6	2.7	10.2	17,452	17,598	89	1.00	2316.5
2012	-0.5	-2.9	2.5	11.4	18,697	17,899	1,161	0.75	2660.0

주: 1)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2)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8	0.0	2.6	7.6	9,816	8,052	1,620	0.86	4810.2
2009	-5.1	-15.5	0.3	7.7	8,018	6,642	1,366	0.28	5957.4
2010	4.0	10.1	1.1	7.0	9,464	7,946	1,496	0.31	6914.2
2011	3.1	8.0	2.1	6.0	10,567	9,005	1,574	-0.18	5898.4
2012	0.9	-0.8	2.0	5.5	10,996	9,103	1,385	-0.05	7612.4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DAX 지수(1987.12.30=1,000)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8	-1.0	-2.7	3.6	5.6	2,521	3,462	-183	2.0	4434.2
2009	-4.0	-9.1	2.2	7.5	2,281	3,110	-172	0.5	5412.9
2010	1.8	2.2	3.3	7.9	2,657	3,642	-370	0.5	5899.9
2011	0.9	-0.8	4.5	8.0	2,991	3,993	-300	0.5	5572.3
2012	0.2	-2.3	2.8	8.0	3,005	4,068	-496	0.5	5897.8

주: 1) 영란은행 RP 금리, 2) FTSE 100지수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2	-2.8	2.8	7.8	4,194	4,751	-356	1.66	3218.0
2009	-3.0	-12.6	0.1	9.6	3,469	3,920	-244	0.36	3936.3
2010	1.6	4.7	1.5	9.7	3,913	4,440	-300	0.40	3804.8
2011	1.7	1.7	2.1	9.6	4,266	5,009	-418	0.01	3159.8
2012	0.1	-2.2	2.0	10.3	4,440	5,113	-340	0.03	3641.1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CAC 40 Index(1987. 12. 31=1,000)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9.1	12.8	5.9	4.1	14,287	11,315	4,124	5.31	1820.8
2009	8.5	12.2	-0.7	4.3	12,020	10,039	2,610	5.31	3277.1
2010	10.4	14.5	3.3	4.2	15,784	13,939	2,376	5.81	2808.1
2011	9.3	13.8	5.4	4.1	18,993	17,416	2,017	6.56	2199.4
2012	7.8	10.0	2.7	4.1	20,501	18,173	2,138	6.31	2269.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0.7	-1.8	3.5	4.1	2,556	2,405	275	2.00	4591.2
2009	-1.8	-8.1	-0.9	5.9	2,037	1,744	429	1.25	8188.1
2010	10.8	26.9	1.0	5.2	2,746	2,514	399	1.63	8972.5
2011	4.1	5.0	1.4	4.4	3,084	2,816	416	1.88	7071.1
2012	1.3	-0.1	1.9	4.2	3,011	2,707	320	1.88	7699.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